

전북교육, 학력의 내일 함께 설계하다

전북교육청, 중등 기초·기본학력 우수사례 공유 설명회... 학력신장 전략 확산·운영 내실화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아트홀에서 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중등 업무담당장학사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중등 기초·기본학력 우수사례 공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학교 현장에서 추진 중인 기초·기본학력 보장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실천 역량을 높이고, 정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실행 사례 나눔을 통해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력신장 전략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기초학력 보장사업에서는 '1수업 2교사제'와 '두드림학교'를, 기본학력 보장사업에서는 '3+1 순수공부 시간 약점보완 캠프'와 '순수공부 60시간 약점보완캠프'를 소개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직접 적용한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구체적인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먼저 '1수업 2교사제'는 교과 담당 교사와 협력 강사가 함께 수업을 하며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도

를 제공한다. '두드림학교'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학습지원, 심리·정서 지원, 학습멘토링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순수공부 60시간 약점보완 캠프'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배움익힘 시간(50시간)'과 취약한 1과목을 교사와 함께 집중보완하는 '약점보완 시간(10시간)'으로 운영됐다. 1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중학교에서도 '3+1 순수

공부시간 약점보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하루 3시간 자기주도 순수공부와 1시간의 교과 약점보완을 병행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순수공부 시간에는 IT기기 사용을 제한해 학생들이 오롯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위학교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5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청렴, 요즘 어때?'를 주제로 양오봉 총장과 MZ세대 직원들이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양 총장과 MZ세대 직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작은 의견도 대학을 투명하게 만드는 밑거름” | 양오봉 전북대 총장 MZ세대 직원과 소통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청렴 문화 확산과 신뢰 있는 조직 문화를 위해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청렴, 요즘 어때?'를 주제로 총장과 MZ세대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공식사회에서 청렴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

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됐다.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강정석 사무국장, 박삼복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단장 등 주요 보직자와 신입 및 저 연차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청렴 OX퀴즈, 포스트잇 Q&A, '청렴 한마디 카드'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일방향 보고식 간담회

가 아닌, 퀴즈와 무작위 질문 뽑기, 의견 카드 발표 등 쌍방향 소통 방식을 도입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에 참가자들은 특히 관행 차단,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청탁 거절 노하우 등 청렴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신입 직원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공유했다.

양오봉 총장은 "청렴은 제도나 규정

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문화가 만들어진다"며 "여러분의 작은 의견이라도 대학을 더 투명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젊은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렴 문화를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청렴도 1등급 목표...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전북교육청, 올해 제2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5층 회의실에서 제2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 대행을 비롯해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취약분야 제도·시스템 혁신 △청렴문화 확산·정착 △청렴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등 4대 전략 5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회의는 반부패·청렴 시책 성과를 공유하고, 부패 취약분야 전략과제 추

진 현황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감질 근절, 고위험 분야 부패요인 집중관리, 부패 신고 시스템 고도화 등 핵심 전략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먼저, 청렴 퍼실리테이터 양성·운영, MZ세대 청렴 서포터스 운영, 거꾸로 멘토링 등 구성원 참여 기반의 청렴 실천 사례들을 보고했다.

계속해서 외부 제감도 향상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전북교육청은 해피콜 피드백, 민원업무 처리 기준 공개,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등으로 대외 신뢰를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상시 기동감찰반, 자기진단제도, 감질 실태조사 등 예방 중심의 통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 중이다.

한편, 종합청렴도 평가 일정과 협조사항도 안내했다. 청렴 노력도 실적은 10월 2일까지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하며, 제감도 설문조사는 8~11월까지 내부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종 평가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은 행정 신뢰의 근간이며, 선언을 넘어 일상에서 실현돼야 한다"며 "실행력 있는 정책을 통해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신속 대응체계 점검, 교육현장 안전문화 확산 앞장’

전북교육청,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 모의훈련... 대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3층 종합상황실에서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훈련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와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날 모의훈련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 상황총괄반과

지원반이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절차를 토론·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훈련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역량

확보 △부서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비상연락망과 협업 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모의훈련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보완함으로써 실제 사고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전자 조절로 메탄 배출 줄인다

원광대 원예산업학과 대학원생 KSPB 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과 박사과정 수지반 라젠드란 대학원생이 한국 식물생명공학회(KSPB)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그린바이오 기술을 통한 미래 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석학들의 구두 발표와 300여 편의 포스터가 발표됐다.

수지반 라젠드란 씨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유전자 분석 기반 메탄 발생 감소 벼 연구"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이번 연구는 벼 뿌리에서 가스

교환을 담당하는 Aerenchyma cell 발생 관련 유전자를 조절해 메탄 배출을 줄이는 벼 유전자원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농생명바이오 혁신 연구로 평가됐다.

수지반 라젠드란 씨는 "식물을 통해 미래 식량과 기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학문적 기여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 김철민 교수는 "식물분자유종학연구실은 미래 식량, 기후, 건강 문제 해결을 목표로 새로운 농생명바이오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연구실의 국제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 22일 대학본부동 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전주교육대학교 제공)

“그간 배운 지식·열정으로 제 역할 해주길”

전주교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29명 학위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2일 대학본부동 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교육학사 1명, 교육학석사 28명이 학위를 받았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연혁보고 △학위증서 수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졸업생과 가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병춘 총장과 최경은 대학원장이 직접 학위

를 수여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는 졸업생과 가족들이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축하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해 2주간 포토존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어휘력 쑥쑥...’

2학기용 ‘초등어휘사전 1600’

초교 3~6학년 학생들에게 제공

학년별 교육과정 연계... 필수 어휘 정리 체계화

단어의 의미 등 통해 다양한 맥락 속 이해토록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학기용 '초등어휘사전 1600'을 초등학교 3~6학년 4만7,000여명에 보급했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어휘사전 1600'은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 국어·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분석해 선정한 필수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습보조노드다.

이는 단어의 의미, 유의어, 반의어, 예문, 짧은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어휘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자료를 1학기부터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한 교사는 "단어의 뜻과 쓰임을 학생이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어휘력뿐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역량까지 함께 기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어휘력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어휘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초등어휘사전 1600'이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학력신장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